

“하루 3만원 벌기도 힘들어...힘들고 답답”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접수 첫날 딱한 사연들 보니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등 광주 고용센터 접수창구 북적
“상생카드 매출 반짝했다 그대로”...임대료·월급 걱정에 한숨만

“힘들고 답답해서 찾았는데, 지원금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 22일, 광주시 북구 북동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담 창구는 하루 종일 북적였다.

현장 접수는 오전 9시부터 받기 시작했지만 한 시간 전부터 창구 앞을 서성이며 신청서를 준비하는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오프라인 신청 첫날이라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10개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창구 옆에 회의실을 마련, 신청서 작성 요령 교육을 진행하면서 대기열을 줄이는 데 공을 들였다. 센터측은 “신청자들이 몰릴 것을 감안, 1주일 전부터 여행 연습을 했다”고 귀띔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전용 웹사이트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로, 애초 다음 달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기로 했다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을 감안, 접수 시기를 앞당겼다. 온라인 신청은 이미 전국적으로 80만명을 훌쩍 넘겼다.

예상대로 첫 날부터 신청자들이 꾸준히 몰리면서 이날 하루 698명이 찾았다. 이날 센터를 찾은 신청자들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었다.

하지만 본인이 지원 대상에 맞는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지,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지, 사업주가 발급한 용역 계약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한 지 등을 묻는 중·장년층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았다.

5부제로 신청을 받는 사실을 모르고 급한 마음에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특수고용직종사자·자영업자, 무급휴직자들도 눈에 띄었다. 광산구에 위치한 광산고용센터도 오전에만 129명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류를 받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센터를 찾은 자영업자들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래된, 낡은 사업주등록증을 손에 쥐고 창구 상담 창구에 앉은 조모(여·60)씨는 “계립동 흙플러스 인근에서 뜨개질방을 운

영하는데, 지난 2월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이 퍼진 뒤부터 수강생들 발길이 끊겨 죽을 맛”이라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고 싶어 찾았다”고 말했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한다는 김모(45)씨도 “임대료와 트레이니어 강사들 월급 주기도 빠듯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코로나19로 의무적으로 2주간 문을 닫았는데 ‘다종밀집시설’이라며 2주를 더 쉬도록 해 4주간 체육관 문을 닫으면서 회원들도 3분의 1수준으로 줄었고 나머지 회원들도 기간 연장·환불을 요청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42년 동안 광주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했다는 강모(65)씨는 “예전에는 아무리 많이 기다려도 30분이면 손님을 태웠는데 요즘엔 1시간 30분 넘게 기다려도 손님 보기가 어렵다”면서 “하루 3만원 벌기도 힘들다”고 했다.

IT정보보호교육 강사인 이모(여·45)씨는 “코로나19 이전에는 한달에 15~20일 관

공서 등을 돌며 강의를 했는데 2월부터 5월까지 한 번도 나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광산구 도산동에서 여성의류매장을 5년째 운영중인 김모(여·45)씨는 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매출이 반토막 났다가 상생카드로 ‘반짝’ 했는데 또 그대로”라고 토로했다.

광산구 우산동에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나모(40)씨도 “하루 10팀 가량이 찾아온 매장에 2월부터는 손님 발길이 끊겨 임대료 내기도 힘들다”면서 “그나마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임대료는 가게를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광주 지역 자영업자는 14만9000명, 등록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프리랜서, 무급휴가직자도 1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2일 오전 광주시 북구 북동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1층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접수현장에서 지원금을 신청을 하기 위한 신청자들이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 헬기 조종사 “UH-1H 사격 없었다”

전두환 재판서 부인

전두환(89)씨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헬기 조종사는 5·18 당시 UH-1H 헬기의 사격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다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성묵 전 육군 제1항공여단 61항공단 203항공대장은 22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 대법정에서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 헬기 사격과 관련해 “203항공대는 UH-

-1H를 운용하며 누구로부터 헬기 사격 지시나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며 “탄약을 지급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백씨는 1980년 5월 21일 다목적 기동 헬기인 UH-1H 10대를 인솔해 광주에 출동했었다.

전씨 측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 여부와 관련된 군 지휘부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백성묵 전 육군 제1항공여단 61항공단 203항공대장,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정에는 백씨만 출석했다.

백씨는 2017년 언론 인터뷰에서 “기관총을 장착했고 저공비행 등 무력시위를 했지만 헬기 사격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당시 우리 헬기가 총을 달고 내려갔는지 기억할 수는 없는데 원래 군인들은 총을 달고 다닌다는 뜻으로 말했다. 이후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하니 무장을 안 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UH-1H에 M-60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훈련인 줄 알고 장착하지 않고 광주에 왔다는 것이다.

전일발된 탄흔에 대해서도 “급하게 경사를 주면 가능할 수 있었지만 헬기 날개 깃(블레이드)에 맞을 수 있어 헬기에서의 상향 사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다른 항공부대가 지상군으로부터 구두로 무장헬기 지원 요청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500MD와 코브라 등 무장헬기가 수행한 작전은 정확히 모르지만 5월 말까지 광주에 주둔하는 동안 헬기사격과 관련한 어떤 무전이나 교신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0일 열리며 전씨 측이 신청한 군 관계자들을 신문한다. 8월 17일에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또...신용카드 이용 세금 대납 사기

광주 500명 220억 피해 5개월만에...60대 여성 1억여원 피해

물건값을 대신 내주면 결제 대금에 수수료까지 없어준다고 속인 뒤 잠적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1월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대납 사기가 속출하면서 광주지역에서만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220억원이 넘는 비슷한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광주북부경찰과 피해자 등에 따르면 A(여·60)씨는 최근 2개월 간 홍삼값을 신용카드로 대신 내주면 결제 대금에 수수료까지 없어준다는 말에 속아 1억 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폐업한 홍삼판매 대리점 물건을 시장 판매가보다 싸게 사들였다가 비싸게 되팔아 차액을 챙길 수 있으니 수수료를 주겠다”는 지인 B씨 말에 속아 카드를 건넸다가 피해를 입었다.

B씨가 물건 구매와 판매를 도맡아 한데다, 결제 대금과 수수료를 A씨 명의자 통장에 꾸준히 입금해 안심하게 만든 뒤 범행이 발생하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카드를 건넨면 매월 6000만원 가량이 결제됐고 B씨는 이후 A씨 통장으로 수수료 100만원을 포함해 6100만원 가량을 입금했다는 것이 A씨 설명이다. 그러다 지난해 7월께부터 ‘지방세 납부’ 방식으로 바뀌더니 최근 2개월 간 1억 2000만원의 지방세 대납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다. 그나마 B씨와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사기범이 수수료는 물론 결제 대금을 통장에 입금하지 않은 채 잠적하면 카드회원은 고스란히 결제대금을 떠안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로, 예전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대납 사기와 유사하다.

납세 편의를 위해 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징수법을 악용한 것으로, 광주지역 신용카드 대납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광주지역에서만 6개월 간 500여명이 22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

북부경찰도 관련 수사에 나서 지난 1월 110명의 피해자에게서 96억의 카드 결제 사기를 벌인 혐의로 2명을 붙잡은 바 있다.

범행도 진화하면서 지방세 카드 대납 사기가 알려지면서 범행도 진화, 물건값을 대신해준다면 피해자를 속이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B씨는 브로커 역할을 했을 뿐 다른 업체가 기업의 지방세 납부를 대행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뿐만 아니라 또 다른 60대 여성도 1억 3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도 이와 관련,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관계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공동개설자 중 한명 위법행위로 의료기관 자격정지

법원 “의료·요양급여 전액 환수는 지나쳐”

병원 공동개설자 중 한 명의 위법 행위에 따라 이뤄진 ‘의료기관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 발생한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의사 A씨 등 4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해남군수 등 8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요양급여비 등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는 A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2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2개월 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자, 자격 정지 기간 지급된 요양급여 5억3000여만원을 4년 6개월이 지나서야 환수했고 다른 8개 시·군도 각각 6만~96만원의 의료급여를 환수 처분했다.

A씨 등은 “자격처분 당사자를 대표원장에서 제외하면 위반되지 않는다는 광주

시 유권해석에 따랐다, “전액 환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환수 처분으로 A씨 등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인정된다”면서 비례 원칙을 위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광주시의 미흡한 행정 처분도 지적했다. 자격정지 2개월 처분과 자격정지 기간,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데 따라 A씨에 대한 행정지도도 요구한 복지부 요청에도, 광주시가 적절한 행정지도도 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나머지 행정기관에 대한 환수 처분 모두를 취소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 상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합회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1%~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4%~4.4%로 저금리 대출
-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저소득층대출(부채 상환 지원)
- 저임금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돕는 지원센터 설치
- 군산·가례동 고용안정 위기지역 분업 무담보·무이자 대출
- 3~9세 아동 65세 이상 저소득·단독 가정에 무이자 대출
- 65세 이상 조합원들 토속채(안락) 대출 지원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자(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